

# 古代 中國語의 動補文 研究 (1)

-- 〈韓非子〉를 中心으로--

이 영 호

(인문대 중어중문학과)

## 目 次

1. 序 言
2. 動補文의 定義와 種類
  - 2.1 動補文의 定義
  - 2.2 動補文의 種類
3. 動補文의 構造와 形式
  - 3.1 動補文의 構造
  - 3.2 動補文과 形式
4. 類似 文型과의 區別
  - 4.1 動補文과 並列文의 區別
  - 4.2 動補文과 兼語文의 區別
  - 4.3 動補文과 連動文의 區別
5. 結 語

## 1. 序 言

현대 중국어에서는 構造助詞 '得'을 사용해서 가능 혹은 정도 등의 뜻을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고대 중국어에 있어서 이와 같은 표현방식에 대해 潘允中은 '得'字의 용법이 先秦에서 漢 이전까지는 본래의 의미인 「획득」과 동사 앞에 위치하여 가능을 표시(助動詞)하는 두 종류가 있었으며, 漢代에 들어와서 그 용법이 발

전하여 동사의 뒤에 위치하기 시작하여 唐代에 와서와 비로소 정도를 표시하는 보어로 발전되었다<sup>1)</sup>고 動補文의 起源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王力은 《中國語法理論》에서 늦어도 唐代에는 이미 산생되었을 것으로 추측<sup>2)</sup>하고 있으며, 《漢語史稿》에서는 漢代에 이미 산생되어 南北朝에 점차 발전하여 唐代에는 보편적으로 쓰였을 것<sup>3)</sup>으로 추측하여 그 발생시기를 앞당기고 있다. 또 傅子東은 《左傳》의 “散離我兄弟”, “撓亂我同盟”(《左傳》成公13年)의 예를 들어 그 산생시기를 先秦時期로 추론하였다.<sup>4)</sup>

이상의 설명을 살펴보면 적어도 漢 이전에 보어로 사용되는 동사 또는 형용사가 술어동사와 결합된 動補文을 구성하여 각종 어법적 의미를 표시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動補文의 형성은 상당히 이른 시기에 산생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 과연 動補文은 어느 시기에 출현한 문형인가? 물론 이 점에 관해서는 先秦時期에 출현한 여러 자료들의 조사와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연구된 바로는 일부 어법서에서 단편적으로 이를 언급하고 있지만 각 자료에 관한 전면적인 定量調査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산생시기에 관한 연구는 좀더 장기간에 걸친 조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연구의 진행을 위해서는 動補文임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과 기초적인 분석 방법이 필요한데, 본고는 動補文이라 인정할 수 있는 문형의 구조를 분석하고, 아울러 유사한 구조를 가진 문형들과의 구별을 통해 動補文의 범위를 설정하고자 한다.

본고는 定量調査의 자료로 《韓非子》를 대상으로 삼았는데, 《韓非子》가 先秦時期의 末期에 출현한 자료로 이전부터 사용된 비

1) 潘允中, 〈漢語動補結構的發展〉, 《中國語文》, 1980.1, pp.54-55

2) 王力, 《中國語法理論》, 上冊, 中華書局, 1954, 北京, p.164

3) 王力, 《漢語史稿》, 《王力文集 第九卷》, 中華書局, 1990, p.528

4) 余建萍, 〈使成式的起源和發展〉, 《現代漢語補語研究資料》, 北京語言學院研究所編, 北京語言學院出版社, 1992, p.70 再引用

그러나 王力은 傅子東이 예로 든 “撓亂我同盟”의 예문중 “撓亂”은 同義의 語素(詞素)가 구성된 複音詞라 보고 이를 動補構造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王力, 《漢語史稿》, 《王力文集 第九卷》, 中華書局, 1990, pp.528-529

교적 많은 동보문이 출현했으리라 추정되기 때문이다.

《韓非子》<sup>5)</sup>는 韓非<sup>6)</sup>의 저서<sup>7)</sup>로 여러 판본이 있겠으나 本稿에서 사용하는 《韓非子》의 本文은 《韓非子索引》(周鍾靈·施孝適·許惟賢 主編, 中華書局, 1982, 北京)에 있는 《韓非子原文》<sup>8)</sup>을 底本으로 한다.

- 5) 《韓非子》는 《史記》나 《漢書藝文志》 등의 기록에 의하면 원래 《韓子》라 불리었다. 송대 이후 《韓非子》라는 명칭이 나왔는데 이는 후세인이 卍의 韓愈를 韓子라 칭하였기 때문에 혼동을 피해 사용된 것으로 보여진다.
- 6) 韓非의 生平에 관한 자료는 그리 풍부하지 않다. 최초의 기록은 《史記·老莊申韓列傳》에 보이는데 그 내용이 疏略하고, 기타 여러 곳에서도 단편적인 언급만이 있을 뿐이다. 韓非의 生卒은 대략 B.C 298-233년으로 보고 있다. 陳奇猷·張覺, 《韓非子導讀》, 巴蜀書社, 1990, 成都, pp.1-13
- 7) 《韓非子》가 韓非의 著書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으나 본고는 어학적인 측면을 살피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논의는 하지 않는다.
- 8) 본고에서 사용하는 《韓非子原文》은 《韓非子》연구의 底本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宋 乾道本을 底本으로 하고, 기타 다른 판본인 道藏本·正德本·迂評本·趙用賢本·張鼎文本·張榜本·凌瀛初本과 先秦의 여러 典籍을 참고로 交勘하였고, 아울러 여러 학자의 견해를 참고로 하고 있어, 《韓非子》를 해석함에 있어서 비교적 정확성을 기하고 있다. 본고에서 저본으로 삼은 《韓非子原文》의 55編名을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編數	編名	編數	編名	編數	編名	編數	編名
1	初見秦	15	亡徵	29	大體	43	定法
2	存韓	16	三守	30	內儲說上 七述	44	說疑
3	難言	17	備內	31	內儲說下 六微	45	說使
4	愛臣	18	南面	32	外儲說 左上	46	六反
5	王道	19	飾邪	33	外儲說 左下	47	八說
6	有度	20	解老	34	外儲說 右上	48	八經
7	二柄	21	喻老	35	外儲說 右下	49	五蠹
8	揚權	22	說林上	36	難一	50	學學
9	八姦	23	說林下	37	難二	51	忠孝
10	上過	24	觀行	38	難三	52	人主
11	孤憤	25	安危	39	難四	53	商令
12	說難	26	守道	40	難勢	54	心度
13	和氏	27	用人	41	問辯	55	制分
14	姦劫弑臣	28	功名	42	問田		

위의 편명은 본고에서 인용하는 예문 뒤에 표시되는데 예를 들어 “君賜之玉環” 30.13.20 의 30은 內儲說上 七述篇을 가리키는 編名이고, 13은 이 책에서 나는 단락을 표시한다. 20은 단락중의 문장위치를 표시한다.

## 2. 動補文의 定意와 種類

### 2.1 動補文의 定義

動補述語란 명칭은 현대 중국어에서는 「動補式」이란 명칭으로도 사용되고 있는데, 고대 중국어에서는 이를 흔히 「使成式」이라稱하고 있다.

王力の 견해에 의하면 “使成式(causative form)은 현대 중국어에서도 常見되는 구조형식이다. 형식상에서 보면 타동사에 형용사(“修好”, “弄壞”)가 附加되거나 또는 타동사에 자동사(“打死”, “救活”)가 부가된 것이다. 의미상에서 말하면 행위와 그로 인해 만들어진 결과를 하나의 動詞句에 표현해내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sup>9)</sup>

즉 「使成式」이란 명칭은 의미적으로는 使役의 의미를 표현하는 문형으로 형식상으로는 「동사+동사 혹은 형용사」가 긴밀하게 연결된 형태를 말한다.

본고도 이를 참고로 하여 動補文은 述語句가 「動詞+補語」로 이루어진 형식으로 의미상으로는 앞 동사의 행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結果, 趨向, 程度 등의 뜻을 표시하는 문형으로 정의한다.

지금도 몇 몇 論著에서 「使成式」의 명칭이 사용되고는 있지만, 현대 어법에서는 「動補式」 또는 「動補 結構」라는 명칭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고대 어법에서도 이와 같은 명칭을 채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도 「動補式」이란 용어로 사용하고자 하며 이러한 구조를 가진 문형을 動補文이라 칭한다.

9) 使成式(causative form)是現代漢語裏常見的一種結構形式。從形式上說,是及物動詞加形容詞(“修好”, “弄壞”),或者是及物動詞加不及物動詞(“打死”, “救活”);從意義上說,是把行為及其造成結果用一個動詞性詞組表達出來。王力,《漢語語法史》,《王力文集 第十一卷》,中華書局,1990, p.367

이전에 왕력은 王力은 《中國語法理論》上冊(p.153)에서 「自動詞+自動詞」(“餓死”)와 「自動詞+形容詞」(“站累”)도 使成式으로 인정하였는데 《漢語史稿》(p.527)에서 使成式的 제1성분이 되는 동사는 타동사에 限한다고 주석을 달고 있어 이전의 그의 견해를 수정하고 있다.

## 2.2 動補文의 種類

動補文은 술어동사와 연결된 補語와 긴밀하게 발생하는 동작행위의 관계에 따라 전체 문장의 의미를 표시하게 되는데 이를 세분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 2.2.1 結果類

동사의 직접적인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동작의 결과를 표시한다. 따라서 動補구조의 앞 성분은 원인을 뒷 성분은 결과를 가리킨다.

- (1) 古有伯夷叔齊者，武王讓以天下而弗受，二人餓死首陽之陵。 14.7.110  
(그리고 옛날에 백이·숙제 형제는 주 무왕이 천하를 그들에게 넘겨 주려 할 때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수양산에서 굶주려 죽었다.)
- (2) 士卒死傷，而賀戰勝得地者，出其小害計其大利也。 47.5.17  
(병사들은 상해를 입는데도 전승하여 땅을 차지함을 축하하는데 그것은 작은 해를 입더라도 큰 이익을 얻기 때문이다.)
- (3) 吾聞見人主者夢見日，奚爲見寡人而夢見龜。 30.9.12  
(내가 듣기로는 군주를 만나게 되는 사람은 꿈에 해를 본다고 했는데 어찌해서 과인을 만나기 위해 꿈에서 부엌 아궁이를 보았다고 하는가?)

### 2.2.2 趨向類

동사 후에 동작의 추향을 표시하는 동사가 오는데, 동작이 행해지는 방향이나 事態의 推移 등을 표시한다.

- (4) 拊而發之，箠逸出於竇中。 35.6.97  
(채찍으로 말의 엉덩이를 때려 빨리 달리게 해 보았다. 그때 한 마리의 큰 돼지가 갑자기 길 옆 도랑에서 달려 나왔다.)
- (5) 蟲流出戶而不葬 37.11.65  
(시체에서 벌레가 나오게 될 때 까지 매장되지 않았다.)
- (6) 父兄賢良播出口遊禍，其患隣敵多資。 48.3.77  
(군주의 부형과 현명한 관리들이 모두 국외로 도망가는 것을 遊禍

라고 하는데 이러한 재화를 당하면 이웃한 적국이 그들을 이용하여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

### 2.2.3 程度類

정도를 표시하는 보어는 동사의 동작이나 성질이 도달한 정도를 표시한다.

- (7) 吾已召之矣, 丙怒甚, 不肯來. 30.13.46  
(제가 이미 그를 소환했으나 맹병은 매우 화를 내며 오려고 하지 않았다.)
- (8) 縣令發尊而席弊甚, 嗣公還令人遺之蓆 31.59.3  
(어느날 현령이 자리를 펴니 몹시 낡아 있었다. 사공은 얼른 사람을 보내 그에게 자리를 하사하였다.)
- (9) 韓昭侯之時, 黍種菅貴甚. 31.34.2  
(한소후때 기장의 씨앗이 항상 부족하여 값이 아주 비쌌다.)

### 2.2.4 數量類

수량사가 동사에 뒤에 위치하여 진행된 시간이나 量 등의 동사가 표시하는 상태를 설명한다.

- (10) 桓公身死七且不收. 44.7.27  
(제 환공의 시체는 죽은지 7일 동안이나 거두어지지 않았다.)
- (11) 晉國大旱, 赤地三年. 10.5.141  
(나라는 오래도록 가물었으며, 삼년간 밭에 작물이 나지 않았다.)
- (12) 重耳即位三年, 舉兵而伐曹矣. 10.11.68  
(중이가 진의 군주가 된지 3년뒤에 군사를 일으켜 조나라를 쳤다.)

### 2.2.5 對象類

대상을 표시하는 형식은 '以' 또는 '於'가 名詞 또는 名詞性句와 함께 구성되는 前目句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處所·時間·方式이나 根據·일반적인 대상을 표시한다.

- ① 處所를 표시

(13) 荊王君臣亡走，東服於陳。 1.3.29

(형나라의 왕은 동쪽의 진으로 달아나 몸을 숨겼다.)

(14) 司馬子期死而浮於江。 3.2.46

(사마자기는 죽음을 당한 후에 강물에 던져 졌다.)

## ② 時間을 표시

(15) 聖人德若堯舜，行若伯夷，而位不戴於世，則功不立，名不遂。 28.2.59

(성인의 덕이 요순과 같고 품행이 백이와 같아도 지위가 때에 맞춰 실어지지 않으면 공도 이를 수 없으며 명성 또한 얻지 못한다.)

## ③ 方式이나 根據를 표시

(16) 故文王行仁義而王天下，偃王行仁義而喪其國，是仁義用於古不用於今也。 49.4.15

(이렇게 문왕은 인의를 행하여 천하에서 왕노릇 하였으나 서 언 왕은 인의를 행하고도 나라를 잃게 된 것은 인의가 고대에는 정치에 적용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정치에 적용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7) 然則說之以節財，非其急者也。 38.10.28

(그러나 재물을 절약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다.)

## ④ 給與를 표시

(18) 反歸，休兵數年，因令人讀地於鍾。 10.6.6

(귀환하여 수년간 병사들을 쉬게 하는 중에 한나라로 사신을 보내 땅을 분할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19) 舜禪天下而傳之於禹。 10.7.30

(순임금이 천하를 우임금에게 전하였다.)

## ⑤ 一般對象을 표시

(20) 臣聞昔者堯有天下，飯於土簋，飲於土甌。 10.7.15-16

(신이 듣건대 옛날 요임금이 천하를 다스릴때에는 흙으로 만든 그릇에 밥을 담아 밥을 먹고 흙으로 만든 병에 물을 담아 마셨다고 합니다.)

(21) 禍福生乎道法，而不出乎愛惡。 29.1.23

(개인의 화복은 도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윗사람의 애오의

감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⑥ 被動文의 行爲者를 표시

(22) 魯之公室，三世劫於季氏，不亦宜乎！ 38.2.3

(노왕실이 3대에 걸쳐 계씨에게 위협당해 마땅치 않는가!)

(23) 昔者彌子瑕有寵於衛君. 12.7.1

(예전에 미자하라는 사람이 위나라 임금에게 총애를 받았다.)

### 3. 動補文의 構造와 形式

#### 3.1 動補文의 構造

筆者가 조사한 바로는 《韓非子》에서도 '得'이 사용된 動補文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리고 '以' '於'의 前目句가 보어로 사용된 형식이 대량 출현하는데, 語順의 위치상 뒤에 있어 보어로 인정하지만, 사실은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성의 수식구조와 비슷한 점이 많다.<sup>10)</sup> 따라서 본고는 前目句 補語를 對象補語라는 項目을 정해 살펴해보지만, 동사뒤에 동사 또는 형용사가 결합되는 구조에 중심을 두고 고찰한다.

##### 3.1.1 述語動詞

동사의 구조는 동사가 단독으로 사용되었고, 副詞 '遂, 故, 則, 後, 以, 前' 등의 수식을 받는 형식이 출현한다.

(24) 商臣作亂，遂攻殺成王. 31.43.4

(상신이 반란을 일으켜 성왕을 살해 하였다.)

10) 예1) 身死三月不收，蟲出於戶. 10.9.91 (시신이 죽은지 3개월이 지나도록 거두어지지 않아서 부패하여 시체가 시체에서 밖으로 기어나왔다.)

예2) 張儀爲和於秦. 10.10.6 (張儀는 진나라와 화친을 맺었다)

위의 두 예문은 동사 뒤에 '於' 前目句가 와서 처소를 표시하는 동보문을 구성하는데, 이때 補語는 동사 뒤에서 동사를 설명하는 副詞性的 補充成分이 된다. 그런데 이 문형은 '於戶'와 '於秦'을 동사앞으로 이동시켜, '於戶蟲出'과 '張儀於秦爲和'로 문형을 변환하더라도 전체 文意는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변환된 문장성분은 副詞語로 변하여 副詞性的 修飾構造가 된다.

(25) 三守不完, 則劫殺之徵也. 16.1.28

(이상은 군주가 지켜야 할 3가지점을 설명한 것이다.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는 곧 군주가 피살되거나 위협을 받게될 전조라고 여겨도 될 것이다.)

(26) 築十版牆, 鑿八尺之牖, 而以日始出時加之其上而觀. 32.17.9

(10판이 벽을 쌓고 그 위에 사방 8척의 창문을 만들어, 이른 아침 해가 뜰때 창문위에 지팡이를 놓고 보면 그 미려함을 보실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7) 美女前近王甚, 數掩口. 31.28.17

(미녀가 앞으로 나갔다가 왕의 곁으로 올때는 꼭 입을 가렸다.)

### 3.1.2 補語

종래의 여러 語法書에 나타난 補語에 대한 명칭을 보면 매우 다양하다. 즉, '補語'<sup>11)</sup>, '補足語'<sup>12)</sup>, '動詞 또는 形容詞의 後附加語'<sup>13)</sup>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명칭들 중 어떤 것들은 補語를 가리키는 개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다만 명칭상으로만 유사한 것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補語의 내용과 개념은 동일하나 補語를 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오는 다른 호칭이 있기도 하다.

이를 테면, '補足語' 명칭의 경우 "李成的妹妹小娥走進來" 에서 "小娥"를 "李成的妹妹"에 대한 '補足語' 로 보았지만<sup>14)</sup>, 현재의 어법 용어로 말하면 '同位語' 에 해당되는 것으로 補語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또한 "工人是勞動者"에서도 "是"이하의 성분 "勞動者"를 '補足語'<sup>15)</sup>라고 하였는데, 그 내용은 판단을 표시하는 목적으로 보어와 는 별개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명칭은 1924년에 英文法을 모방

11) 丁聲樹 等編, 《現代漢語語法講話》; 張志公 主編, 《現代漢語》; 劉月華·潘文娛·故韓, 《實用現代漢語語法》 등등

12) 張志公, 《漢語語法常識》 中國青年出版社, 1953. p.193

黎錦熙, 《新著國語文法》 臺灣商務印書館, p.16

13) 呂叔湘, 《語法學習》, 中國青年出版社, 1953 pp.59-65

14) 張志公, 《漢語語法常識》 中國青年出版社, 1953. p.193

15) 黎錦熙, 《新著國語文法》 臺灣商務印書館, p.16

하여 지은 《新著國語文法》(黎錦熙)의 용어로서 영문법 중의 'complement'의 개념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으로 중국어의 보어와는 그 개념이 다른 것이다.

그리고 '動詞 또는 形容詞의 後附加語'의 경우는 補語成分을 일종의 賓語로 간주한 관점의 차이에서 명명된 것이나, 補語가 가지는 내용과 개념은 현재의 補語에 상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고는 이상에서 예로 든 상이한 개념과는 상관없이 현재 여러 어법서에서 널리 사용되는 '補語'라는 名稱을 사용하였다.

### 3.1.2.1 結果補語

結果補語에 사용되는 품사는 他動詞, 自動詞, 形容詞가 사용되었는데, 거의 단독으로 사용되었고, 副詞 '大'의 수식을 받는 형식이 하나 출현한다. 품사별로 사용된 단어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意味	品詞	韓非子	參 考
結果	他動詞	殺, 勝, 取, 爲, 見	殺, 勝, 破, 滅, 取, 得, 絕, 降, 中, 斷, 爲, 見, 通, 除, 鎖, 斬, 折, 開, 脫
	自動詞	死, 亡, 醉	死, 走, 傷, 沒, 殘, 墮, 亡, 定, 動, 入, 去, 來, 下, 出, 却, 了, 著(着), 怒, 止, 覺, 醉, 成, 碎, 壞, 落, 退, 散, 倒, 飽, 離, 住
	形容詞	盡	正, 明, 滿, 平, 夷, 窳, 罷, 白, 空, 幣, 盡, 亂, 均, 悉, 弱, 高, 厚, 大, 小, 輕, 重, 遠, 近, 少, 顯, 濕, 足, 明白, 飽足

#### ① 補語로 他動詞가 쓰인 경우

(28) 李兌之用趙也, 鐵殺主父. 35.21.4

(이태는 조나라에서 중용되었는데 그를 등용한 무령왕 후보를 굶어 죽게 했다.)

(29) 然則去國之海而不劫殺, 非其難者也. 38.6.18

(그래서 나라를 떠나 바다에 나가 노닐어도 겁살당하지만 않으면 나라의 어려움이 아니다.)

- (30) 故臨兵而慈於士吏則戰勝敵，慈於器械則城堅固。 20.35.4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할때, 병사들을 아끼고 사랑하면 강한 적과도 싸워 승리할수 있으며, 기계를 소중히 하면 성곽을 견고하게 할 수 있다.)
- (31) 簡子乃去樞櫓，立矢石之所及，鼓之而士乘之，戰大勝。 37.14.36  
 (조간자는 방패를 버리고 화살과 돌이 날아오는 곳까지 나가서 북을 치며 독전하니 군사들이 진군하여 대승을 거두었다.)
- (32) 令發五苑之菰蔬棗栗，足以活民，是用民有功與無功爭取也。 35.8.20  
 (만일 오원의 과실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들의 목숨을 구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백성중에 공이 있는자나 없는자 할것 없이 모두가 국왕 의 하사품을 얻고자 다투게 하는것과 같소.)
- (33) 桓公得管仲，立爲五霸主 14.7.85  
 (제나라 환공은 관중을 증용함으로써 춘추시대 첫 패자의 지위에 올랐다.)
- (34) 韓裕立爲君未定也。 23.33.1  
 (한의 공자 구가 양왕의 뒤를 이어 즉위했으나 아직 나라가 안정 되지 않았다.)
- (35) 小白先入爲君，魯人拘管仲而效之，鮑叔言而相之。 23.26.12  
 (소백이 먼저 제나라로 돌아와 군주가 되었고 노나라 사람들은 관중을 잡아 제나라로 압송하였다. 이에 포숙이 관중을 극구 천거하여 재상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 (36) 吾欲觀見之。 32.12.55  
 (왕이 그 조각질을 보고 싶다고 하였다.)
- (37) 周君爲之，望見其狀。 32.17.10  
 (주군이 객의 말대로 하고서 그형상을 바라보았다.)
- ② 補語로 自動詞가 쓰인 경우
- (38) 古有伯夷叔齊者，武王讓以天下而弗受，二人餓死首陽之陵。 14.7.110  
 (그리고 옛날에 백이·숙제 형제는 주 무왕이 천하를 그들에게 넘겨주려 할때 끝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마침내 수양산에서 굶주려 죽었다.)
- (39) 下比於近世，未至餓死擢筋也。 14.8.52

(아래로 근세의 일과 비교해 볼때는 굶어 죽거나 힘줄이 뽑히는 일은 당하지 않는다.)

(40) 是以姦臣蕃息, 主道衰亡. 4.1.15

(그러므로 간신들이 창궐하면 군주의 권세는 쇠퇴하는 것이다.)

(41) 飲酒醑, 過而擊之也, 民大驚. 32.57.4

(술에 만취하여 경고를 침으로써 백성들을 놀라게 했다.)

③ 보어로 形容詞가 쓰인 경우

(42) 攻盡陶·魏之地 6.1.26

(약소국인 도국과 위를 침공하였다.)

(43) 魏數年東鄉攻盡陶·衛 19.1.43

(위나라 안희왕때 처음 동쪽으로 소국들을 정벌한지 몇년간은 도·위의 두지역을 완전히 점령하였다.)

### 3.1.2.2 趨向補語

趨向補語에는 추향을 표시하는 自動詞만이 쓰이고 있는데, 모두 단독으로 사용된 單純趨向補語만 나타나고, 複合趨向補語는 출현하지 않는다. 품사별로 사용된 단어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意味	品 詞	韓非子	參 考
趨向	自 動 詞	單 純	退, 出, 進, 去, 來, 入, 出, 下, 上, 起, 過, 進, 退, 至, 到, 歸, 回(廻), 轉, 落, 還
	複 合	없음	上去, 上來, 下去, 下來, 過去, 過來, 出來

(44) 別跪走退. 31.25.11

(발이 잘린 문지기는 물러갔다.)

(45) 其卒子嗜以亂死, 桓公蟲流出戶而不葬, 此其故何也? 7.3.28

(그 결과 연왕 자궤는 전란속에서 사망하였고 제 환공은 사후에 수조동의 역모로 인해서 시신에서 벌레가 흘러 나와도 장례가 행해지지 못하였다. 이 모두는 어떠한 까닭에서 인가?)

(46) 築十版牆, 鑿八尺之牖, 而以日始出時加之其上而觀. 32.17.9

(10판이 벽을 쌓고 그 위에 사방 8척의 창문을 만들어, 이른 아침해가 뜰때 창문위에 지팡이를 놓고 보면 그 미려함을 보실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47) 田子方從齊之魏, 望翟黃乘軒騎駕出. 33.9.2

(전자방이 제나라로 부터 위나라로 들어갔다. 가는 도중에 적황이 헌거를 타고 기병을 앞세워 마주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48) 得勢位, 則不推進而名成. 28.1.19

(세력과 지위를 얻으면 밀고 나아가지 않아도 공명이 이루어진다.)

### 3.1.2.3 程度補語

程度補語로는 自動詞와 副詞가 쓰였고, 副詞 '不'의 부식 받은 형식이 4례 출현한다. 품사별로 사용된 단어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意味	品 詞	韓非子	參 考
程度	副 詞	甚	甚, 極, 滋甚, 益甚
	自動詞	酣	竟, 訖, 畢, 罷, 酣, 死
	形容詞	없음	遠, 絕, 急, 深, 滿, 悉, 甚遠, 深遠, 異常, 非常
	他動詞	없음	殺

(49) 王飲酒酣樂 35.7.51

(왕은 거나하게 술이 취해 즐거웠다.)

(50) 其國亂弱矣, 又皆釋國法而私其外, 則是負薪而救火也. 亂弱甚矣. 6.1.47

(나라가 어지럽고 약소국으로 전락했음에도 여전히 국법을 준수하지 않고 법 밖에서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으니 마치 켄을 지고 불을 끄려는 것처럼 기울어 가는 국운을 더욱 더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51) 君愛宛甚, 何不一爲酒其家? 31.29.6

(당신께서 극완을 아주 총애하시는데 어째 그의 집에 가서 술자리 한번 안 가지십니까?)

(52) 吾聞汝今者發尊而席弊甚, 賜汝席. 31.59.6

(과인은 그대가 얼마전 자리를 폄더니 몹시 낡아 있었다고 들었다. 이에 그대에게 자리를 하나 보내노라.)

## 3.1.2.4 數量補語

數詞과 量詞가 함께 쓰였고 「數詞+里」의 형식이 출현한다. 數詞와 時間名詞가 결합된 형식은 수량보어로 볼 수 없지만 본고는 편의상 수량보어에 포함시켜 설명한다. 품사별로 사용된 단어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品 詞	韓非子	參 考
數詞	一, 二, 三, 四, 五, 七, 八, 九, 十, 百, 千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百, 千, 萬
量詞	里	尺, 丈, 寸, 分, 里, 匹
名詞	日, 年	日, 年

(53) 秦人恣侵, 去絳十七里. 37.14.21

(진의 침공으로 도성 강 17리 앞까지 진의 군대가 쳐들어 왔다.)

(54) 身死三月不收, 蟲出於戶. 10.9.90

(몸이 죽어 3개월이 지나도 거두어지지 않아 시체에서 벌레가 나왔다.)

(55) 居一年餘, 管仲死, 君遂不用隰朋而與豎刁. 10.9.83

(1년이 넘어 관중은 세상을 떠났으나 환공은 여전히 습봉을 등용하지 않았으며, 수조와 함께 지냈다.)

(56) 齊桓公并國三十, 啓地三千里. 6.1.11

(제나라 환공도 30여국을 병합하여 영토 삼천여리에 달하는 성세를 누렸다.)

## 3.1.2.5 前目句補語

‘以’, ‘於’의 前目句로 구성되어 대상을 표시하는 보어로 사용되었다.

(57) 和乃抱其璞而哭於楚山之下, 三日三夜, 泪盡而繼之以血. 13.1.18

(화씨는 초산의 아래에서 그 옥돌을 끌어 앉고 사흘 밤 사흘 낮을 울었다. 나중에는 눈물이 마르자 눈에서 피가 흘렀다.)

(58) 故曰: “戎馬生於郊.” 21.1.14

(노자가 “새끼를 뱀 어미말조차 군마로 쓰이니 변경의 전쟁터에서

새끼를 낳는다.”라고 하였다.)

- (59) 鳥有翮翮者，重首而屈尾，將欲飲於河，則必顛. 23.3.3  
 (주주라는 새가 있는데 머리가 무겁고 꼬리는 굽어 있어 강에서 물을 마시려고 할때 강으로 굴러 떨어지곤 했다.)
- (60) 宋襄公與楚人戰於涿谷上. 32.45.1  
 (송양공이 탁곡에서 초와 전쟁을 하였다.)
- (61) 明君無爲於上，羣臣竦懼乎下. 5.1.45  
 (명군은 위에서 구체적인 정무를 보지 않아도 아래에 있는 신하들은 군주의 권위에 떨게 되는 것이다.)
- (62) 故彌子之行未變於初也，而以前之所以見賢而後獲罪者，愛憎之變也. 12.7.25  
 (미자의 행동은 처음이나 달라진 것이 없었다. 그러나 앞서서 칭찬을 받았으나 후에는 죄를 얻었던 까닭은 사랑이 미움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 (63) 古有伯夷叔齊者，武王讓以天下而弗受，二人餓死首陽之陵. 14.7.109  
 (옛날에 백이·숙제 형제는 주 무왕이 천하를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할때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수양산에서 굶주려 죽었다.)

### 3.1.3 目的語

목적어 쓰이는 품사로는 대다수 명사가 출현하고, 수사나 대체사도 출현한다. 구조적으로는 대부분 명사가 단독으로 사용되고, 「관형어+명사」의 형식과 「명사+명사」가 병렬된 구조가 보인다.

#### 3.1.3.1 名詞

##### ① 固有名詞

- (64) 曰：“臣尊矣，然而臣疏。”乃立爲仲父. 33.30.14  
 (“신의 지위는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주군으로 부터는 아직 소원한 관계에 있습니다.” 하니, 환공은 그를 받들어 증보로 삼았다.)
- (65) 內素出圈，必身自執其度量. 8.8.38  
 (안으로 조정에서 부터 서민으로 내려가면서 사행과 일탈을 방제하는 과정에서 군주는 반드시 상벌의 권한을 자신의 손에 장악하고 있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된다.)
- (66) 故將見人主者夢見日. 30.9.19

(그래서 군주를 배알하려면 꿈에 해를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② 普通名詞

(67) 法刑苟信, 虎化爲人, 復反其眞. 8.7.48

(법과 형벌이 엄격히 지켜지면 맹호는 일반인으로 돌아와 본래 신하의 면모로 복귀할 것이다.)

(68) 夢見龜, 爲見公也. 30.9.9

(꿈에 부엌 아궁이를 보았는데 과연 영공을 배알하게 되었습니다.)

(69) 其卒子噲以亂死, 桓公蟲流出戶而不葬. 此其故何也? 7.3.28

(그 결과 연왕 자쾌는 전란속에서 사망하였고 제 환공은 사후에 수조동의 역모로 인해서 시신이 부패하여 시충이 문밖으로 기어나갈 정도가 되도록 오랫동안 장례가 행해지지 못하였다. 이 모두는 어떠한 까닭에서 인가?)

③ 數詞

(70) 今羣臣無不一辭同軌乎季孫者, 舉魯國盡化爲一 30.10.15

(그런데 지금 여러 신하들 의견은 계손의 의견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 모든 백성의 의견이 같아졌으니 공이 노나라의 모든 사람에게 물어본 다고 해도 혼란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④ 代替詞

(71) 吾欲觀見之. 32.12.55

(왕이 그 조각칼을 보고 싶다고 하였다.)

⑤ 冠形語 + 名詞

(72) 故劫殺擁蔽之主, 兼失刑德而使臣用之, 而不危亡者, 則未嘗有也.

7.1.47

(그러므로 신하들에 의해서 축출당했거나 살해되고 혹은 재위해 있으면 서도 국정의 실상을 듣지 못했던 군주들은 형과 덕의 권한을 모두 빼앗겼기 때문이며, 그것을 신하가 사용했던 것이니 그리고도 망하거나 위태롭지 않았던 경우는 존재하지 않았다.)

(73) 攻盡陶魏之地 6.1.26

(약소국인 도국과 위를 공격하여 멸망시켰다.)

- (74) 則有直任布衣之士, 立爲卿相之處 14.7.78  
 (포의의 선비에서 일약 경상의 지위에 설 수 있었던 것이다.)
- (75) 桓公得管仲, 立爲五霸主 14.7.85  
 (제나라 환공은 관중을 중용함으로써 춘추시대 첫 패자의 지위에 올랐다.)
- (76) 周君爲之, 望見其狀. 32.17.10  
 (주군이 객의 말대로 하고서 그 형상을 바라보았다.)

⑥ 名詞+名詞: 병렬구조

- (77) 魏數年東鄉攻盡陶·衛 19.1.43  
 (위나라 안희왕때 처음 동쪽으로 소국들을 정벌한지 몇 년간은 도위의 두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였다.)

### 3.2 動補文와 形式

動補文의 형식은 동사뒤에 보어 성분이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와 목적어를 동반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다음 3가지 형식이 있다.

#### 3.2.1 (主語)+他動詞+補語+目的語

- (78) 商臣作亂, 遂攻殺成王. 31.43.4  
 (상신이 반란을 일으켜 성왕을 살해 하였다.)
- (79) 故臨兵而慈於士吏則戰勝敵, 慈於器械則城堅固. 20.35.4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할때, 병사들을 아끼고 사랑하면 강한 적 과도 싸워 승리할수 있으며, 기계를 소중히 하면 성곽을 견고하게 할 수 있다.)
- (80) 攻盡陶·魏之地 6.1.26  
 (약소국인 도국과 위를 침공하였다.)
- (81) 法刑苟信, 虎化爲人, 復反其眞. 8.7.48  
 (법과 형벌이 엄격히 지켜지면 맹호는 일반인으로 돌아와 본래 신하의 면모로 복귀할 것이다.)
- (82) 韓咎立爲君未定也. 23.33.1  
 (한의 공자 구가 양왕의 뒤를 이어 즉위했으나 아직 나라가 안정

되지 않았다.)

- (83) 臣昧死願望見大王. 1.5.40  
 (그런까닭에 제가 죽음을 무릅쓰고 감히 대왕을 알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 (84) 於是公子從其計. 疾走出門. 31.13.28  
 (그 남자는 그녀가 시키는 대로 하고서 문을 향해 질주하여 나갔다.)
- (85) 失管仲·得整·而身死. 蟲流出戶不葬. 37.8.29  
 (관중이 죽자 수조를 중용했으나 환공의 사체에서 벌레가 나올때까지 장례도 치르지 않았다.)

### 3.2.2 (主語) + 他動詞 + 目的語 + 補語

- (86) 王飲酒酣樂. 35.7.51  
 (왕은 거나하게 술이 취해 즐거웠다.)
- (87) 田子方從齊之魏. 望翟黃乘軒騎駕出. 33.9.2  
 (전자방이 제나라로 부터 위나라로 들어갔다. 가는 도중에 적황이 현거를 타고 기병을 앞세워 마주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 (88) 君愛宛甚. 何不一爲酒其家? 31.29.6  
 (당신께서 극완을 아주 총애하시는데 어째 그의 집에 가서 술자리 한번 안 가지십니까?)
- (89) 或曰: 蜚惡甚者. 大誅報小罪. 39.9.2  
 (또 어떤사람이 말하길 원흉에게 심한 보복을 가하는 군주는 가벼운 죄를 지어도 엄중한 벌을 내린다.)
- (90) 荊莊王并國二十六. 開地三千里. 6.1.8  
 (초나라 장왕이 군소국가 스물 여섯개국을 병합하여 영토를 삼천여리 확장시켰다.)
- (91) 昔者黃帝合鬼神於泰山之上. 10.5.108  
 (지난날 황제가 태산의 정상에서 귀신들을 모았다.)
- (92) 是故明君之畜其臣也. 盡之以法. 質之以備. 4.2.13  
 (그런까닭에 현명한 군주라면 그의 신하들을 대함에 있어서 귀천을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국법에 따라 통제해야 하며 두루 방비를 갖추어야 한다.)
- (93) 父兄大臣上請爵祿於上. 而下賣之以收財利及以樹私黨. 9.3.16  
 (부형과 대신들은 위로 군주에게 작위와 봉록을 청하여 아래에

이를 팔아 재물을 모으고, 결국 사사로이 봉당을 조직하는데 까지 이르렀다.)

(94) 夫韓雖臣於秦, …… 2.3.12

(지금 비록 한나라가 진나라를 섬기고 있지만…….)

### 3.2.3 [主語]+他動詞+補語

(95) 不食而餓殺. 30.13.56

(먹지 못해서 굶어 죽었다.)

(96) 簡子乃去樞槽, 立矢石之所及, 鼓之而士乘之, 戰大勝. 37.14.36

(조간자는 방패를 버리고 화살과 돌이 날아오는 곳까지 나가서 북을 치며 독전하니 군사들이 진군하여 대승을 거두었다.)

(97) 是以姦臣蕃息, 主道衰亡. 4.1.15

(그러므로 간신들이 창궐하면 군주의 권세는 쇠퇴하는 것이다.)

(98) 刑跪走退. 31.25.11

(발이 잘린 문지기는 물러갔다.)

(99) 得勢位, 則不推進而名成. 28.1.19

(세력과 지위를 얻으면 밀고 나아가지 않아도 공명이 이루어진다.)

(100) 晉平公與羣臣飲, 飲酣 36.9.2

(진나라 평공은 군신들과 술을 마시다 거나하게 취했다.)

## 4. 類似한 文型과의 區別

動補文의 정의에서 動補文은 使役의 의미를 표현하는 문형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고대 중국어에서 사역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使成式」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動補文외에 동사가 使動用法으로 쓰인 使動文과 동사자체에 원래 사역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兼語文<sup>16)</sup>이 있다.

이들 문형들이 표현하는 의미는 같다고 할 수 있지만, 그 형식은 차이가 있다. 動補文은 동사에 동사 또는 형용사가 결합된 형식을 취하지만, 동사의 使動用法은 하나의 동사가 사용되고, 원래의 동

16) 本節 2. 兼語文과의 구별에서 자세히 논함

사가 가지는 의미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에서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용법이다.

(101) 莊公寤生，驚姜氏 <<左傳隱公元年>>

(장공은 難産되어, 강씨를 놀라게 하였다)

(102) 穰歲之秋，疎客心食 49.2.2

(풍년든 가을에는 낫선 손님에게도 꼭 음식을 대접한다)

(103) 古有伯夷叔齊者，武王讓以天下而弗受，二人餓死首陽之陵。

14.7.110

(그리고 옛날에 백이·숙제 형제는 주 무왕이 천하를 그들에게 넘겨주려 할때 끝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마침내 수양산에서 굶주려 죽었다.)

(104) 齊桓公飲酒醜，遺其冠，恥之，三日不朝。 37.3.1

(제 환공은 술에 만취되어 관을 떨어뜨리고는 부끄러워 3일동안 조정에 등청하지 않았다.)

예문(101)은 '놀라다'라는 의미를 가진 自動詞로 원래 목적어를 가지지 않지만 목적어가 있는 문장에 출현하여 '--를 놀라게 하다'라는 사동용법으로 쓰였다. 예문(102)은 타동사로 '--을 먹다'라는 뜻인데 예문과 목적어가 같이 출현하지 않을 경우 '--를 먹이다'라는 의미로 역시 사동용법으로 쓰였다. 이에 비해 예문(103)-(104)는 「他動詞+他動詞」가 긴밀하게 연용되어 앞동사의 행위로 발생한 결과를 표시하는데, 예문(103)은 '餓'의 행위로 말미암아 '死'하게 되는 것으로 '굶어 죽게 되다'의 의미를 표시한다. 예문(104)은 '飲'하는 행위로 인하여 '醜'하게 되는 결과를 나타내어 '술을 마셔 취하게 되다'라는 사역의 의미를 가진다.

使動文은 문장의 어순에 의존하여 성립되는 반면에 動補文은 동사가 복합된 새로운 구조로 使動文과 같은 의미를 표시하고 있다.

#### 4.1 動補文과 並列文의 區別

動補文과 병렬문 중 「동사+동사」로 連用된 비슷한 구조가 있다. 動補文은 동사가 표시하는 동작 행위의 결과나 추향 정도 등을

표시하기 때문에 만약, 어순을 바꾼다면 이상해지거나 非文이 된다. 의미적으로 보면 동사와 보어는 동등한 관계가 아니다.

이에 비해 병렬문은 병렬되는 各 項이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므로 어순을 바꾸어도 그 뜻에는 큰 변화가 없다.

(105) 李兌之用趙也, 饑殺主父. 35.21.4

(이때는 조나라에서 중용되었는데 그를 등용한 무령왕 후보를 굶어 죽게 했다.)

(106) 是以姦臣蕃息, 主道衰亡. 4.1.15

(그러므로 간신들이 창궐하면 군주의 권세는 쇠퇴하여 없어지는 것이다.)

(107) 臣有大罪者, 其行欺主也, 其罪當死亡也. 11.6.30

(그 중 대죄에 속하는 자는 매사에 군주를 속이고 있느니 그 죄는 처형되어 마땅한 것이다.)

(108) 所以然者, 聽姦臣之浮說, 不權事實, 故雖殺戮姦臣, 不能使韓復強. 2.7.36

(이것은 어떤 연유에서 었겠습니까? 간신들의 잘못된 진언을 믿어 실제를 헤아리지 못했던 까닭이니 일이 일어나고 안후에 간신들을 처형해 본들 나라를 다시 강성하게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문 (105)-(106)은 動補文으로 '饑'의 직접적인 결과로 '殺'이 되고 역시 '衰'의 결과로 '亡'하게 된다. 만약 어순을 바꾸어 '殺饑'와 '亡衰'로 바꾸면 원래 文意와는 다르게 된다.

예문 (107)-(108)은 병렬문으로 '死亡'과 '殺戮'은 각 項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즉 '亡死'와 '戮殺'로 바꾸어도 원래의 文意와는 큰 변동이 없다.

이와 같이 動補文과 병렬문은 구조상 連用되는 두개의 동사 또한 형용사가 표시하는 各 項의 의미가 동등한가의 여부를 판단해서 이를 구별해야 한다.

## 4.2 動補文과 兼語文의 區別

(109) 蒞金公子將伐陳. 23.14.1

(초나라가 공손조에게 진나라를 정벌하도록 했다.)

(110) 武王使玉人相之. 13.1.11

(무왕은 옥을 다듬는 사람을 불러 감정케 하였다.)

(111) 吾已召之矣, 丙怒甚, 不肯來. 30.13.46

(제가 이미 그를 소환했으나 맹병은 매우 화를 내며 오려고 하지 않았다.)

(112) 李兌之用趙也, 餓殺主父. 35.21.4

(이태는 조나라에서 중용되었는데 그를 등용한 무령왕 후보를 굶어 죽게 했다.)

예문(109)-(110)은 動補文으로 술어는 「動詞+動詞(補語)」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예문(111)-(112)은 겹어문으로 본래 사역을 표시하는 동사 '令'과 '使'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 심층 구조는 「他動詞+目的語」와 「主語+動詞」로 이 때 앞동사의 목적어가 뒷동사의 주어로 사용되는 겹어로 사용된다. 표층구조로도 「他動詞+兼語+動詞」으로 나타나 動補文의 구조와는 차이를 보인다.

이와 같이 動補文과 겹어문은 그 형식의 차이가 확연하기 때문에 이를 쉽게 구별할 수 있다. 그러나 겹어문 중 임명을 표시하는 '立' 동사 중 겹어가 생략되어 '立爲'의 형식이 보이는데 動補文에도 '爲'가 보어로 사용된 '立爲'의 형식이 보인다.

(113) 輔重耳入之於晉, 立爲晉君. 10.11.67

(중이를 도와 진으로 들어가게 하여 군주에 등극하게 하였다.)

(114) 曰: “臣尊矣, 然而臣疏.” 乃立爲仲父. 33.30.14

(“신의 지위는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주군으로부터는 아직 소원한 관계에 있습니다.” 하니, 환공은 그를 받들어 중보로 삼았다.)

(115) 桓公得管仲, 立爲五霸主. 14.7.85

(제나라 환공은 관중을 중용함으로써 춘추시대 첫 패자의 지위에 올랐다.)

(116) 韓咎立爲君未定也. 23.33.1

(한의 공자 구가 양왕의 뒤를 이어 즉위했으나 아직 나라가 안정 되지 않았다.)

예문 (113)-(114)는 겹어문 인대 겹어인 '重耳'와 '管仲'이 각각 생략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보충하면 '立重耳爲晉君'과 '立管仲爲仲'으로 다시 겹어문의 기본적인 형식으로 복원할 수 있다. 그러나 예문 (115)-(116)의 動補文은 겹어가 생략된 형식이 아니라 동사 '立' 뒤에 보어 '爲'가 사용되어 결과를 표시한다.

여기서 중요한 구별 요소가 되는 것은 上文에 위치한 주어이다.

예문 (113)-(114)는 上文에 주어 '秦穆公'과 '桓公'이 있는데 동사 '立'의 주어가 되고 생략된 '重耳' '管仲'은 뒤에 위치하는 '爲晉君'과 '爲仲父'의 주어가 된다. 이에 비해 예문 (115)-(116)은 주어인 '桓公' '韓咎'가 직접 動補구 '立爲'의 서술의 대상이 되며, 뒤에 있는 '五霸主', '君'은 각각 주어와 同格을 가리킨다. 이와 같이 겹어문과 動補文에 비슷한 유형이 나오더라도 주어와 동사의 상관관계를 잘 살피면 이를 구별할 수 있다.

### 4.3 動補文과 連動文의 區別

본고에서 調査한 접속사로 연결된 연동문은 動補文과의 구별이 명확하다. 그러나 접속사로 연결되지 않고, 바로 「動詞(句)+動詞(句)」 또는 「動詞(句)+目的語+動詞(句)」의 형식을 취하여 결과를 표시할 경우 動補文의 결과보어가 표시하는 형식과 비슷하다.

그러나 연동문의 두 번째 술어동사는 결과를 표시할 수 있으나 여전히 하나의 상대적인 독립된 동작으로 행위 동작의 선후 순서에 따라 배열된다.

이에 비해 動補文의 보어는 독립된 동작이 아니고 술어 동사가 표시하는 동작의 직접적인 결과를 표시하므로 의미의 중점은 보어에 있고 술어동사와 보어사실상 같은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117) 故劫殺擁蔽之主，兼失刑德而使臣用之，而不危亡者，則未嘗有

也. 7.1.47

(그러므로 신하들에 의해서 축출당했거나 살해되고 혹은 재위해 있으면 서도 국정의 실상을 듣지 못했던 군주들은 형과 덕의 권한을 모두 빼앗겼기 때문이며, 그것을 신하가 사용했던 것이니 그러고도 망하거나 위태롭지 않았던 경우는 존재하지 않았다.)

(118) 戰士出死, 而願爲賁育. 26.1.18

(전사는 출전해 죽기를 하육과 맹분같이 되기를 원한다.)

(119) 李兌之用趙也, 饑殺主父. 35.21.4

(이대는 조나라에서 중용되었는데 그를 등용한 무령왕 후보를 굶어 죽게 했다.)

(120) 古有伯夷叔齊者, 武王讓以天下而弗受, 二人饑死首陽之陵. 14.7.110

(그리고 옛날에 백이숙제 형제는 주 무왕이 천하를 그들에게 넘겨주려 할때 끝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마침내 수양산에서 굶주려 죽었다.)

예문(117)-(118)는 연동문으로 '劫殺' '出死'는 먼저 발생한 동작인 '劫'과 '出'의 행위가 있는 후에 '殺'과 '死'하게 된 결과를 표시한다. 따라서 각 동사는 여전히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다만 連用될때 그 결과의 의미를 표시하게 된다. 즉, 예문(117)는 「劫擁蔽之主+殺擁蔽之主」가 연결된 형태이고 예문(118)은 「戰士出+戰士死」가 연결된 형태로 분석하게 된다.

예문(119)은 動補文으로 '饑'의 동작 행위로 인해 '殺'과 '死'하게 되는 결과를 표시한다. 즉, 예문이 표시하는 내용의 中點은 보어나 나타내는 의미에 있으므로 만약 이를 「饑主父+殺主父」라는 형태로 이해한다면 이는 원래의 文意와 다르게 된다. 여기서 '殺'은 '죽이다' '살해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죽다(死)'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보를 굶기다+조보를 살해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다. 또, 예문(120) 역시 이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연동문에는 動補文과 비슷한 형식이 등장하고 있다.

(121) 靈王饑而死乾溪之上. 10.4.21

(영왕은 굶주리다가 마침내 건계 지방에서 죽었다.)

(122) 武公怒而戮之. 17:“胡, 兄弟之國也.” 12.6.8

(무공은 화를 내며 그를 처벌하고는 말하기를 “호나라는 형제와 같은 나라이다.”라고 했다.)

예문(121)-(122)과 같이 결과를 표시할 때 연동문과 動補文이 함께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이후 점차 動補文의 형식으로 발전되어 나간 것으로 생각된다.

## 5. 結 語

본고에서 조사한 《韓非子》의 動補文을 動詞의 동작과 補語가 나타내는 의미 관계를 고려한 구조와 형식상의 사용빈도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5.1 構造別 使用頻度

		結 果									
動詞	饑	戰	爭	化,立,入	望,聞,夢,觀	饑	衰,亂,削,敗	飲	攻	18개	
補語	殺	勝	取	爲	見	死	亡	醉	盡	9개	
回數	2	7	1	6	11	4	6	2	2	41	
%	4.9	17.1	2.4	14.6	26.8	9.8	14.6	4.9	4.9	100	

		趨 向				程 度					
動詞	走	流,索,說, 走始,望, 逸,播	推	10개	飲	弱,聽,怒,毀,醉, 近,愛,貴,幣,疾, 報,治,亂,憂,	知	求	懼	哭	20개
補語	退	出	進	3개	酣	甚	疾	急	多	悲	6개
回數	1	13	1	15	2	18	1	1	1	1	24
%	6.7	86	6.7	100	8.3	75	4.2	4.2	4.2	4.2	100

1) 먼저 結果를 표시하는 경우는 述語動詞는 18개가 사용되었는데, 補語에 사용되는 단어를 품사적으로 세분화해 보면 총 9개가 쓰였는데, 他動詞 '殺, 戰, 取, 爲, 見'과 自動詞 '死, 亡, 醉' 그리고

形容詞 '盡'이 사용되었다. 動補文이 結果를 표시할 때는 述語動詞가 표시하는 의미보다는 보어에 사용되는 단어에 文意가 실현되고 사용되는 단어는 비교적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趨向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10개의 술어 동사가 사용되었고, 補語는 3개가 사용되었다. 程度를 표시하는 경우 20개의 술어 동사가 사용되었고, 보어는 6개가 사용되었다. 趨向, 程度를 표시할 때는 述語動詞에 표시하는 의미에 보어는 보충 설명하게 되고 역시 사용되는 단어는 비교적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潘允中은 선진시기에 비교적 유행하던 것은 使動用法였으며, 동사 후의 動補 用例는 아직 드문 현상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sup>17)</sup> 그러나 《韓非子》에서는 그 용례는 많지는 않지만 動補文이 출현하고 있어, 動補述語文은 이미 선진시기에 萌芽되어 적어도 戰國時期에는 그 형식을 갖추어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2) 數量詞가 보어로 사용된 경우는 8回(18.9%)이고, 「數詞+名詞」가 보어로 사용된 경우 36回(81.8%)가 출현하는 거리와 시간을 표시한다. 수사로는 '一, 二, 三, 四, 六, 七, 八, 九, 十, 百, 千'이 사용되고, 양사로는 '里' 하나 만이 발견된다. 時間名詞로는 '日, 年, 月'이 출현한다.

3) 前目句로 구성된 보어가 대량으로 출현하는데, 대상을 표시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다시 이를 세분화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前置詞	處所		時間		方式·根據		給與		一般對象		被動的 행위자	
	回數	%	回數	%	回數	%	回數	%	回數	%	回數	%
於	158	97.5	6	85.7	—	—	4	100	653	95.2	141	93.4
以	—	—	1	14.3	44	100	—	—	—	—	—	—
乎	4	2.5	—	—	—	—	—	—	33	4.8	—	—
焉	—	—	—	—	—	—	—	—	—	—	10	6.6
總計	162	100	7	100	44	100	4	100	686	100	151	100

17) 潘允中, 〈漢語動補結構的發展〉, 《中國語文》, 1980.1, p.53

前目句에는 '於', '以', '乎'가 사용되었는데, 處所, 時間, 一般對象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대다수 '於' 前目句가 쓰였고, '以' 전목구는 방식이나 근거를 표시할 때 출현한다. '乎' 前目句는 일반대상을 표시할 때 사용되었고, 처소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적게 사용되었다. 被動文에서 행위자를 표시하는 '於' 前目句가 출현하고, 전치사와 대체사를 복합한 형태인 謙詞 '焉'이 출현한다.18)

## 5.2 形式別 使用頻度

《韓非子》에 사용된 형식은 3가지로 그 사용빈도는 다음과 같다.

1) 動詞 + 補語	724回	61.4%
2) 動詞 + 補語 + 目的語	30回	2.5%
3) 動詞 + 目的語 + 目的語	430回	36.1%
	總 1184回	100.0%

1)의 형식이 가장 많이 쓰였고, 다음으로 3)의 형식이 많이 사용되었다. 2)의 형식은 前目句 補語에는 출현하지 않아 적게 쓰였다고 할 수 있다.

---

18) 於 <動詞 + 於 + 行爲者>	95回	62.8
① <得 + 動詞 + 於 + 行爲者>	3回	2.0
② <動詞 + 乎 + 行爲者>	7回	4.6
③ <見 + 動詞 + 於 + 行爲者>	3回	2.0
④ <受 + 動詞 + 於 + 行爲者>	1回	0.7
⑤ <爲 + 動詞 + 於 + 行爲者>	3回	2.0
⑥ <有 + 動詞 + 於 + 行爲者>	7回	4.6
⑦ <動詞 + 焉>	10回	6.6
⑧ <有 + 動詞 + 焉>	2回	1.3
⑨ <動詞 + 目的語 + 於 + 行爲者>	20回	13.4
	總 151回	100.0

( ⑨의 형식은 二重目的語의 間接目的語에 해당됨 )

## 參考文獻

- 黎錦熙,《新著國語文法》,臺灣商務印書館,民國58年
- 董治國 編著,《古代漢語句型大全》,天津古籍出版社,1988
- 邵增樺 註譯,《韓非子今註今譯修訂本》上下,商務印書館,1992,臺北
- 呂叔湘,《語法學習》,中國青年出版社,1953
- 王先慎,《韓非子集解》,《諸子集成 五》,中華書局,1990,北京
- 張志公,《漢語語法常識》,中國青年出版社,1953
- 周鍾靈 施孝適 許惟賢 主編,《韓非子索引》,中華書局,1982,北京
- 陳啓天,《增訂韓非子校釋》,商務印書館,1992,臺北
- 陳奇猷 撰,《韓非子集釋》,復文圖書出版社,1991,臺北
- 潘允中,〈漢語動補結構的發展〉,《中國語文》,1980
- 余建萍,〈使成式的起源和發展〉,《現代漢語補語研究資料》,北京語言學院研究所編,北京語言學院出版社,1992
- 王力,《中國語法理論》,上·下冊,中華書局,1954,北京
- 王力,《漢語史稿》,《王力文集 第九卷》,中華書局,1988
- 王力,《漢語語法史》,《王力文集 第十一卷》,中華書局,1990
- 劉月華·潘文娛·故韡,《實用現代漢語語法》,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1983
- 張志公 主編,《現代漢語》中冊,人民教育出版社,1985
- 丁聲樹 等,《現代漢語語法講話》,商務印書館,1961